여수 백야도 연안 바다목장 내년 완공 '순조'

인공어초 투하 등 50억 들여 2011년 시작
올핸 해중림·종묘방류·낚시터 조성 추진

여수시가 내년 완공 목표로 '연안 바다목장'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는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에 걸쳐 50억원을 투자해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일원에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산생물 산란장 및 해중림(바다숲)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119개 ▲자연석투석 3908㎥ ▲해중림 어초 108개 등을 시설하고 수산종묘 59만6000미를 방류했다.

올해는 인공어초 투하와 해중림 조성, 수산종묘 방류, 낚시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정면 백야도는 지난 2004년 백야대교가 세워지며 육지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이곳은 수려한 해양경관과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바다목장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관광 레저시설을 겸비한 체험형 관광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3억여원을 들여 전복 등 패류를 살포하는 등 어족자원 증강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 화정면 백야도 연안에 내년까지 완공되는 바다목장 조감도.

갯녹음이 심해지고 있는 돌산도 연안 4곳에 투석사업을 실시하는 등 해양생태계 복원에도 힘쓰고 있다.

'해적생물'로 불리는 불가사리 300t을 없애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는 어업인 소득창출과 해양생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바다숲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시는 여수 해역 9299ha에 430억원을 투자해 해양생물을 정착·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인공 어초를 해저와 해중에 설치했다. 올해도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양·관광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생물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수산업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3년간 산불 발생 1건도 없는 장흥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효과

3년 동안 장흥지역에 산불발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며 산불진화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산불 감시초소 체제로 산불 예방행정을 하고 있는데 비해 장흥군은 도내 최초로 지난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불예방 진화대는 개인 소유 화물트럭 소유자(33명)를 진화요원으로 선발, 1일 2인 1조 차량이 평균 120㎞ 이상의 산불취약 지역을 순찰·홍보활동을 하며 산불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군은 이들 산불예방 진화대 요원들에게 1월부터 5월 말까지 유류대 지원과 함께 일당 4만5000원의 기본급(주차·월차수당 별도)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장흥지역 산림면적은 전남 전체(69만ha)의 5.8%에 해당하는 4만1000ha(6번째)이다. 지난 1993년 3월에 장흥 사자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공무원 등 4명이 숨진 바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고흥, 민선 4·5기 공모사업 139건 1088억 달성

웰빙 유자·석류특구 183억 등 올 5건 선정

고흥군은 민선 4·5기 동안 공모사업 139건에 국·도비 1088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들어서도 중앙부처와 도 공모사업 5건에서 18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군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고흥 웰빙 유자·석류 지역특구'에 지정되면서 국·도비 183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을 비롯해 1·4분기에만 '정례 직거래 장터 지원 사업'(9900만원) 등 5건이 선정됐다.

또 현재 11건(156억 원)이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절반만 선정되더라도 역대 최고 성과(2012년 254억원)를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면소재지 종합 정비·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향토 산업 육성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자생식물원 조성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왔다.

또한 군은 지방 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지원과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개설 등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병종 군수는 "공직자의 도전과 군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면서 "자체수입만으로는 군 살림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국·도비 확보와 투자유치에 온 힘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3년 연속 안전행정부 주관의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공모사업 부문 최상위 S등급을 받았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목마타고 별구경해요"

지난 12일 '고흥 우주항공축제' 행사장을 찾은 젊은 아빠가 광주·천문동호회 '별사랑' 부스에서 딸을 목마태운 채 천체망원경을 보여 주고 있다. 고흥군은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고흥 박지성 공설운동장에서 우주항공축제를 개최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곡성축협, 의암리에 '한우경매시장' 준공

20억 들여 3982평 부지에

곡성축협(조합장 박왕규)은 최근 삼기면 의암리에서 '곡성 한우경매시장' 준공식과 함께 축산인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번 준공식에는 허남석 곡성군수와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박종수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조합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농가의 운송비 절감과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을 연 '곡성 한우경매시장'은 총 3982평의 부지에 경매장 388평과 사료창고 133평, 식당 36평 등을 갖췄다.

곡성농협은 지난 2011년에 사업에 착수, 20억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해 경매시장을 완공했다.

박왕규 조합장은 "한우 경매시장의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곡성 축산인의 소득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경매시장이 단순한 매매의 기능을 떠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는 장(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보성, 패류생산 전진기지 거듭난다

장암리서 꼬막 종묘배양장 준공식
올 중간 육성장 조성사업 12억 확정

꼬막 주산지인 보성군 벌교에 꼬막종묘 배양시설이 들어섰다.

보성군은 최근 벌교읍 장암리에서 벌교꼬막 종묘배양장 준공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부지 2만4786㎡에 건축면적 6685㎡(지상 1층) 규모의 꼬막 종묘배양장을 건립했다.

군은 종묘 배양장이 본격 가동되면 꼬막종패의 원활한 수급으로 가격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꼬막·맛·피조개·굴·백합, 모시조개 종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패류생산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종묘배양장과 연계해 201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꼬막 중간 육성장 조성사업에 예산 12억원을 확정한 상태이다.

군은 종묘배양장에 이어 꼬막 중간 육성장이 들어서면 종묘 배양장에서 치패를 생산하고, 꼬막 중간 육성장에서 종패를 키워서 지역 어민들에게 싼값으로 보급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정종해 군수는 "소설 '태백산맥' 등에 힘입어 벌교 꼬막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에 착공한 벌교 꼬막 웰빙센터와 벌교꼬막 종묘 배양장이 벌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고흥경찰서 위문금 전달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소장 송영준) 직원들은 최근 성과금을 1%씩 모금한 성금으로 관내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 2가구에 위문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